

## 한우

### 이승기, 국민먹거리 한우 알리기 나섰다



배우 이승기가 어려운 한우 농가를 위해 광고 모델로 나섰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는 배우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승기를 광고모델로 하여 5월 21일부터 새로운 한우 광고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5월 9일 광고 촬영을 마친 이번 광고는 그동안 믿음직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 이승기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쇠고기는 우리 한우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정훈 홍보마케팅 팀장은 “이승기가 그동안 보여준 성실한 이미지가 우직하고 믿음직한 한우와의 이미지와 잘 맞아 광고모델로 발탁하게 되었다”며 “최고의 모델인 이승기를 통해 맛과 영양이 뛰어난 한우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우자조금은 이번 광고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 2013. 05. 21

## 한돈

### 한돈협 충북도협의회 사무실 개소

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가 새로운 등지를 틀었다. 충북도협의회(회장 이진석)는 지난 5월 14일 증평군 증평읍 창동 649번지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윤희 충북도 농정국장과 홍성열 증평군수, 김봉희 충북도의원, 조철희 음성축협장, 장성순 충북한돈조합장, 그리고 이병모 한돈협회장, 전흥우 한돈협회 부회장 및 시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진석 충북도협회회장은 이날 “마침내 충북 양돈농가들의 숙원이던 도협의회 사무실을 갖게 됐다”며 “도협의회 사무실은 앞으로 충북 양돈농가들의 정보교환과 쉼터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석 회장은 이어 돼지사육두수가 1천만두를 돌파하면서 공급과잉에 따른 심각한 불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직시, 양돈농가 모두 모든 감축에 앞장서는 한편, 앞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질적인 성장에 중점을 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2013. 05. 20

## 양계

### 안영기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 재추대 관리위, 대전서 2기 대의원회 임원진 선출



제3대 계란자조금 관리위원장에 안영기 현 위원장이 만장일치 재추대됐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5월 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계란자조금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대의원회 의장·감사, 대의원회 부의장, 관리위원장, 관리위원을 선출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관리위원장직에는 안영기 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재추대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3기 대의원회 의장은 이영재 현 대한양계

협회 경기도지회장이 무투표 당선되었으며 대의원회 감사는 이순기씨(경북 김천)와 허준무씨(경기 용인)가 각각 당선됐다. 대의원회 부의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중 1명 이상을 추천하면 대의원회는 추천자 중 1명을 지명해 선출한다는 원칙에 따라 충북 영동의 남기훈 대의원이 선출됐다.

관리위원 선거에서는 이해운(강원 원주), 남기훈(충북 영동), 김진길(충남 천안), 이현수(충남 아산), 최광일(전북 고창), 서상민(전남 담양), 오정길(경북 영천), 권영택(경북 경주), 김태용(경남 의령)대의원이 무투표 당선됐으며 투표를 실시하려 했던 경기도 지역 관리위원 선거에서는 기존 4명의 후보 중 이재덕 여주축협장이 사퇴함에 따라 김인배(포천), 김종찬(안성), 황승준(평택)대의원이 선출됐다.

한편, 관리위원장과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은 각각 2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관리위원은 4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13. 05. 09

## 낙농 목우

### 낙농자조금, 도심속 목장나들이 2일간 이색 목장체험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가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2013 유성온천 문화축제'와 함께 '도심 속 목장나들이'를 개최했다. '도심 속 목장나들이'는 올해로 여섯 해를 맞는 체험행사로 지금까지 54만 여 명의 참가자들이 다녀갔다.

지역축제와 함께 하는 '도심 속 목장나들이'특별전시장에는 우유의 생산과정 및 목장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목장 체험, 우유 체험 및 우유와

관련된 다양한 부대 행사 등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5월 11일 '2013 유성온천문화축제'와 함께한 '도심 속 목장 나들이'에는 유성구 구청장 및 유성구에 사는 어린이들이 테이프 커팅식에 참가해 많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도심 속 목장 나들이'는 먼저, 우유교실에서 젓소와 우유에 대해 배우고 퀴즈를 푼다. 그리고 송아지에게 직접 우유와 건초를 주고, 또 착유체험을 통해 우유가 생산되는 과정을 알게 한다. 그리고 우유비누, 우유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우유를 사용한 간단한 요리를 해봄으로써 우유를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유브로콜리 감자수프, 우유 빙수, 흰 우유 등을 무료로 맛볼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한 가지 체험을 끝낼 때 마다 체험 확인 도장을 받고, 모든 체험을 완수하게 되면 경품에 참여해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워낭으로 액세서리 만들기, 젓소 캐릭터와 사진 촬영 등 실제 목장에서처럼 자연을 체험하고 재미있는 추억거리를 남길 수 있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 이승호 위원장은 "평소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유의 생산과정을 이해시키고, 완전식품으로서 우유의 효능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목장을 친근하게 느끼고, 국내 우유가 세계 최고의 품질임을 알릴 수 있는 행사들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흰 우유 하루 세 번 마시기'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낙농가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심 속 목장나들이'는 올해 6차례에 걸쳐 추가 진행될 계획이다. 5월 18일부터 19일에는 '청주 문암생태공원'에서, 6월 1일부터 2일 사이에는 강릉에서, 그리고 6월 8일부터 9일까지는 고양 '고양장미꽃축제'에서 진행되며 하반기에는 3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3. 05. 14

## 양봉

### 한국양봉협회 '허니허니 데이' 개최



한국양봉협회는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서울시청 일대에서 '허니허니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벌꿀 등 양봉산물을 선물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양봉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도시민에게 생소한 꿀벌의 공익적 가치와 우수한 양봉산물을 홍보해 양봉산업의 환경학적 가치를 홍보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서편광장)에서는 각종 양봉산물을 홍보하는 전시관 및 벌꿀비누와 밀납초를 만들 수 있는 체험관, 시원한 꿀차와 꿀떡을 시음·시식할 수 있는 시식관 등 부스가 차려졌다. 또한 서울

시청과 청계청 일대를 오가는 피켓 거리홍보 등도 진행됐다.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13.05.24

## 사슴

### 한국양육협회, '사슴협회'로 명칭 변경

한국양육협회(회장 정유환)가 한국사슴협회로 협회명을 바꿨다. 협회는 올 초 이사회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좀 더 친숙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사슴협회로 협회명을 바꾸기로 의결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

그간 협회명 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수차례 제기돼 왔으며, 이번에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협회 내에서도 큰 반대의견이 없는 만큼 개칭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올해 개최되는 우수사슴 선발대회에서 명칭 변경을 공식화하는 기념행사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는 무엇보다 올해 질병 청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사슴결핵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사슴의 개체등록사업이나 그 외 발전방안들에 앞서 질병문제에 협회가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사슴산업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수입육용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비가 높은 국내 환경에서 국산 육용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품질에서 확연한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고질적 질병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품질차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농가들도 알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차원의 사슴질병 청정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적절한 보상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질병 청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013. 05. 06